

# | 특집 | 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의 말

강의 개선방향 신입 교무처장에게 듣는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강의에 대한 연구

## 기획의 말

강의는 교수와 학생이 직접 만나 지식을 생산·전수하고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대학교육의 핵심적인 활동 중의 하나이다. 강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는 시도로서 지금까지 여러 방향에서 계속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특히 학생의 입장에서 강의를 평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각되고 있다.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여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 미국 대학의 '강의평가제'부터이며 1990년대 들어서는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이를 도입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도 수년 전부터 교양 강의를 대상으로 강의평가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일부 단과대학이나 학과의 경우 자체에서 개발한 강의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강의평가제는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담당 교수에게 제공함으로써, 강의의 장단점을 파악하게 하고 강의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수자의 개인적 관심과 노력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강의를, 제도적인 관심과 평가의 영역으로 전환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강의평가제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하나는 강의평가가 개별 강의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수자는 자신의 강의에 대한 평가 결과를 비교·분석할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를 다음 강의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강의평가를 실시하는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강의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의에 대한 평가 작업이 교육 개선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 당국의 제도적 지원과 강의에 대한 지속적 연구 사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교수 업적이 연구 업적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도적 변화가 없이는 교수자들이 강의와 교육에 많은 노력을 쏟게 하기 어려우며, 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어떤 강의를 좋은 강의인지에 대한 연구 작업이 없이는 그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번 호에는 '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특집을 준비하였다. 특집에는 학내 교육 개선 작업을 맡고 있는 신임 교무처장 변창구 교수(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와의 인터뷰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시한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강의의 특성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를 묶었다. 교무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학 당국의 강의 개선 의지와 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강의의 특성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강의를 좋은 강의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일반적인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특집이 학내 강의 개선을 위한 전반적 방향 설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